



월드와치리스트 2024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월드와치리스트 2024 보고기간 2022년 10월 1일 - 2023년 9월 30일

기독교 박해지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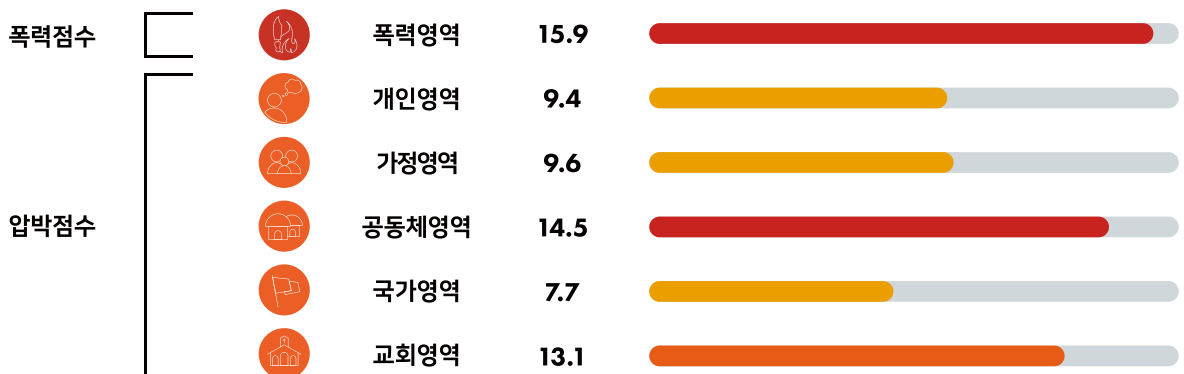
27위

니제르 (NIGER)



©Alamy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영역박해지수는영역별로 16.7점을만점으로책정한다. 영역별총합은100점이다(6x16.7=100)

중요한 발견

니제르 기독교인은 2023년 7월 쿠데타를 겪은 후 큰 고통을 당함으로 인해 두려움이 한층 더 고조되었다. 그것은 니제르 정권이 서방군의 철수를 요구한 것 때문에, 잔인한 전술로 악명 높은 바그너 단체가 쳐들어 올 것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런 사건의 전개는 기독교인들이 여러 방면으로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켰다.

1. 가족의 압박 :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가족으로부터 자신의 새로운 신앙을 버리라는 강한 압박을 끊임없이 당한다. 가족은 말로 협박하는 것부터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까지 이르고, 정치적인 불안정이 확대될 때 이런 개인적 취약함이 더욱 가중된다.
2. 지하드의 위협: 니제르 서부와 남동부에 특히 지하드 활동이 급증하고 있다. 이 지역의 기독교인들의 상황은 심각하다. 공동 예배와 모임은 극히 위험하고, 폭력적 공격을 피하기 위해 종종 비밀리에 진행된다.
3. 고용 차별 : 기독교인들은 공공 부문에서 더 밀려나고 지방 정부 공무원의 고용 기회가 기독교에게는 거의 해당이 되지 않는다. 직위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승진 거부를 포함하는 제도적 장애는 일반적인 관행이 되고 있다.
4. 법적 장애: 교회 등록을 위한 절차는 여전히 길고 복잡하며, 정치적 격변을 고려할 때 상황이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5. 새로운 위협: 바그너 단체는 민간인들에게 행한 잔학 행위 때문에 혐의를 받은 상태이므로, 그들이 진압할 경우 기독교인에 대한 위협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니제르 (NIGER)

국가 정보

지도자 : 모하메드 바줌 대통령

인구 : 27,066,000 명

기독교인 수 : 66,600 명¹

주요종교 : 이슬람교

정부형태 : 준대통령제



©Alamy

¹ 정보출처: Todd M. Johnson and Gina A. Zurlo,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accessed March 2023)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인	66,600	0.2
이슬람교도	26,096,000	96.4
불교도	873,000	3.2
힌두교도	49,200	0.1

출처²

니제르는 1960년에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후, 네 번의 군사 쿠데타로 인해 정치적 격동기를 겪었다. 그러나 2011년 이후부터 언론의 자유와 정치 및 시민 단체의 평화적 집회가 개선되면서 민주화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 2021년 4월에 취임한 모하메드 바조움 대통령은 니제르의 서부와 남부에게 일어나는 지하드 폭력을 억제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떠안고 있다. 니제르는 이슬람 마그렙의 알카에다, 말리 북서부 국경을 따라 서아프리카 단결 단체와 지하드 운동, 나이지리아 남부 국경의 보코하람 등 여러 무장 이슬람 단체와 분쟁을 벌이고 있다.

니제르 인구의 대부분은 티나니아, 또는 카디리야 수피 이슬람을 따른다. 그러나 이슬람 무장 세력은 살라피즘 (Salafism)을 옹호하기 위해 수피 계열을 해체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오래된 개신교와 가톨릭 교회로 대표되는 니제르 기독교는 주로 미국 선교 단체에 의해 소개되었다. 기독교인과 특히 이슬람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지역 사회 남부 국경에 가까운 지역에서 배척을 당하고 때로는 폭력적인 공격을 받는다. 기독교 여성들과 소녀들은 납치와 성폭력에 특히 취약한 반면, 소년들은 무장 단체에 강제로 징집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2023년 7월에 일어난 또 한 번의 쿠데타로 정치적 지형은 혼란스럽게 바뀌었다. 최근의 격변으로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미 위태로운 상황에 복잡성까지 더하고 있다. 이

번 쿠데타는 다당제 민주주의로 향하려는 진행을 약화시키기 위해 위협하며 이미 만연한 지하드 폭력을 잠재적으로 확대하여 니제르의 종교 자유의 미래에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

지역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주요 도시 외곽 지역, 특히 수도권 외곽 지역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박해를 많이 받는 곳이다.

누가 영향을 받았는가?

국외 거주자 기독교 공동체들

이주민 기독교인들은 납치 당할 위험이 높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들

개신교와 가톨릭 교회 모두가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니제르에 만연해지는 이슬람 무장 세력 때문에 고통당하고, 지난 몇 년 동안 나이지리아 국경 근처 디파 주에서는 보코하람과 같은 무장 단체의 공격을 받았다. 이 마을의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안전을 위해 큰 도시로 피해야 했다. 이런 사건은 툴라베리 주에서도 목격되었다. 나이지리아와 가까운 지역에 있는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 다수가 폭력적 공격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고 있다.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

어떤 경우에 이슬람에서 개종한 이들에 대한 압박이 개인 영역과 가족 영역, 그리고 공동체 영역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부모와 친척들은 가족의 개종자에 대해 정부보다 더 심하게 반대하기도 하고, 급진 이슬람의 이맘과 교사들은 일반 무슬림들에게 개종자들과 개종자들에게 사역하는 어떤 기독교인들이라도 발견하면 그들을 공격하고 쫓아내라고 가르친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니제르에서 압박 받는 단체는 침례교, 복음주의, 오순절교단이다. 이들은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와 같은 종류의 압박을 받지만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비하면 그 강도는 덜 하다.

² 정보출처: Todd M. Johnson and Gina A. Zurlo,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accessed March 2023)

박해와 차별의 주요 근원

씨족의 압력과 혼합된 이슬람의 압력

이슬람을 떠나는 것은 배반으로 간주되고, 특히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신앙이 발각될 경우 무슬림 가족과 지역 사회의 적으로 대한다. 국가와 종교는 분리한다고 내세웠던 세속 국가의 원칙은 압박에 의해 힘을 잃고 있다. 급진 이슬람 단체 이잘라 (Izala)는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시작되었으나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니제르에서 활동하며 기독교인들을 위협하고 있다. 타리카 (아랍어로, "길" 즉 알라에게 접근하는 수피 방식)와 같은 다른 이슬람 압력 단체도 특징 지역 (예: 마라디와 니아메이)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잘라와 타리카는 소수 종교인들과 이슬람을 떠난 무슬림에게 압력을 가한다. 니제르는 다수의 무슬림과 소수 종교인들 사이에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니제르와 보코하람 사이의 분쟁은 지역 긴장을 고조시켰고 니제르 안에 있는 기독교인의 안전과 자유를 위협하였다.

조직적 부패와 범죄

이슈푸 전 대통령은 정부 내 부패를 척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았다. 부패 방지 조치로 공무원과 그 가족, 모든 정당을 대상으로 하는 법을 제정하였고, 계약 체결 시 이해 상충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는 법률도 마련하였다. 민간 기업의 공직자에 대한 뇌물 수수는 공식적으로 불법이다. 그러나 부패는 사법부의 문제이며 처벌 받지 않는 면제 특권은 국가가 직면한 심각한 난제이다. 법을 어기고 부패 행위를 하는 공직자들은 불리한 여론이 일어나도 제대로 기소되지 않으며 이런 상황은 기독교인들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여성

사하라 사막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처럼, 여성과 소녀들은 극단 주의자들에 의해 납치와 강간, 성 학대를 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강간의 경우에 가족은 수치심으로 장래 결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두려워 보고를 하지 않는다. 더구나 여성 개종자들에 대해서 가족과 지역 공동체는 극도의 적개심을 표출한다. 그들은 자녀 양육권을 빼앗기거나 상속권을 박탈당할 수 있으며, 무슬림과 강제 결혼을 해야 하거나 강간을 당하기도 한다.

여성이 전형적으로 받는 압박지점:

- 납치
- 자녀 양육권 박탈
- 상속권이나 재산권 박탈
- 종교적 복장 강요
- 강제 이혼
- 강제 결혼
- 가정에서 축출
- 가족에 의한 감금
- 폭력 - 신체적 / 성적

남성

남성 개종자들은 가족에게 쫓겨나거나 가택 구금을 당하기도 한다. 그들은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무슬림 공동체에 의해 사업이 보이콧 당할 수 있다. 남성은 일반적으로 재정에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그의 가족은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또한 소년들은 납치되어 무장 단체에 강제로 가담하게 될 위험에 처해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기독교인들만 표적으로 삼는지는 불분명하다.

남성이 전형적으로 받는 압박 지점:

- 납치
- 사업/ 직장/ 일을 통한 경제적 괴롭힘
- 집에서 강제 축출
- 정부에 의한 구금
- 양심에 반한 군대의 징집
- 폭력-죽음

월드와치리스트 5년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 점수
2024	27	70
2023	28	70
2022	33	68
2021	54	62
2020	50	60

니제르의 박해점수는 보고 기간 동안에 작년과 동일하다.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

- **이동의 자유 제한** : 기독교인들이 자유로운 이동 가능성에 심하게 방해 받고 있다. 이런 제한은 출근, 교회 예배 참석, 가족 및 친구 방문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일에 영향을 미친다.
- **폭력 표적과 납치** : 기독교인들은 계획적인 폭력에 표적이 되고, 그 범위는 언어 폭력부터 납치에 이르기 까지 광범하다. 이러한 납치의 의도는 보통 기독교 공동체 내에 공포를 조장하거나 몸값을 받아 내려는 데 있다.
- **기독교 재산과 건물 파괴** : 가정과 사업체를 포함한 기독교 재산이 고의적인 파괴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교회와 기타 건물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많은 건물이 파손되거나 완전히 철거되고 있다. 이는 예배와 공동체를 위한 안전한 공간을 잃게 할 뿐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참기 어려운 상황을 상기시키기도 한다.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구금을 당한 기독교인들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당한 기독교인	추방당한 기독교인	강제결혼 당한 기독교인
2024	100*	1000*	10*	100*
2023	100*	1000*	10*	30*

이 표는 보고 기간 동안 발생한 신앙 관련 폭력에서 몇 가지 범주 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결과는 Full Country Dossier의 폭력 영역에서 확인 가능하다. 많은 사건들이 보고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수치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 되어야 한다.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 상징적인 어림 수가 주어졌고 (10*, 100*, 또는 1000*) 이 결과들은 실제로 상당히 더 높을 수 있다.



©Alamy

개인 영역

니제르는 국가적으로 종교는 사적인 일로 여긴다. 그러나 정교 분리의 국가 성격을 대항하는 이질라와 같은 급진 이슬람 단체에 의한 압력은 점점 더 거세어지고 있다. 이 지역이 보코하람과 알카에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가족 영역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가족과 지역 사회로부터 극심한 적대감과, 이혼, 양육권 박탈을 당할 수 있고, 여성은 무슬림 남성과 강제 결혼을 해야 하거나 강간을 당할 수 있다. 기독교인 부모는 법에 따라 자녀 양육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승인을 얻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개종으로 인해 상속권을 거부당한다. 개종자가 아닌 다른 기독교인들은 이런 형태의 박해를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신앙을 실천할 수 있다.

공동체 영역

무슬림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지역 사회에서 소외되고, 때로 폭력을 당하기도 한다. 이슬람의 통제에 영향을 받는 국경 지역은 기독교인이 결혼식을 거행하는 것은 위험하다. 기독교인들은 공공 부문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지방 정부의 직장에 들어가는 일은 매우 드물며, 승진도 다반사로 거부된다. 니제르의 기독교 남성들은 자신의 믿음 때문에 해고 되거나 무슬림 공동체에 의해 사업이 보이콧 당하기도 한다.

국가 영역

보코하람과 이슬람 국가 (IS)와 여러 급진 단체는 기독교 공동체를 끊임없이 공격하여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국가의 안전에 대한 결여는 기독교인의 공동체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지하드는 기독교인과 국가 당국을 표적으로 삼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낮은 인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분쟁을 피한 기독교인들은 보소 (Bosso)와 예비 (Yebbi) 같은 IDP 캠프나, 남쪽 국경 너머 나이지리아의 마이두구리 (Maiduguri)와 올라 (Yola)에 살고 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공동체를 공격하는 폭력이 존재한다.

교회 영역

무장 단체 폭력의 위협으로 인해 기독교인들의 공동 예배와 모임은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기독교인들이 현지에서 모임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교회 등록을 위한 법적 절차는 매우 길고 까다롭다.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니제르는 다음 국제 조약들에서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하였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ESCR)
3. 고문방지 협약 (CAT)
4. 여성차별철폐 협약 (CEDAW)
5. 유엔아동권리 협약 (CRC)

니제르는 다음 기독교인들의 권리를 자주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의 국제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이유로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차별에 직면할 수 있다 (ICCPR 제26조)
- 기독교이들은 흔히 신앙을 버리도록 구타와 압박을 경험한다 (ICCPR 제18, 10조)
- 기독교 개종자들은 신앙을 버리도록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압박과 폭력에 직면한다 (ICCPR 제 18조)
- 기독교인들은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전도에 참여하면 괴롭힘과 폭력을 당할 수 있다 (ICCPR 제18조, 19조)
- 기독교 개종자들은 자녀 양육권과 상속권을 잃는다. (ICCPR 제26조)
- 교회들은 새 건물을 짓기 위한 허가를 얻고 법적 인정 자격을 얻기 위해 여러 장애에 직면하다 (ICCPR 제 21, 26조)

이외 소수 종교 집단의 상황

미 국무부 (IRFR 2022 니제르)에 따르면, "2022년 2월, 니제르 당국은 무슬림 성직자 알파 알리 부바 카르를 체포하고 '공공질서에 해로운 정보 생산 및 유포와 폭력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하였다. 그는 정권에 반대를 표명하고, 툴라베리 지역의 보안 관리가 부실한 것과, 프랑스군의 주둔에 대해 정부를 비판하였기 때문에 기소되었다." 주요 도시 중심부에는 주로 여호와 증인과 바하이가 거주하는데, 이들은 급진 이슬람 단체의 폭력의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너무 많은 관심을 끌거나 박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행동하여야 한다.



오픈도어 니제르 사역

오픈도어는 2011년부터 지역 교회와 협력을 통해 니제르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

니제르에 대한 우리의 비전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이해하고 성경적으로 대응하며,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다른 이들에게 계속적으로 나아가며, 섬기는 지도자로서 합당한 훈련을 받은 목회자를 세우는 것이다. 우리의 사역은 다음을 포함한다.

- 박해 대비 훈련
- 다문화 전도 및 새신자 돌보기 훈련
- 경제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
- 제자 훈련

